

상담자의 동성애혐오반응에 관한 연구

서영석[†] 이정림 강재희 차주환

건국대학교

본 연구는 148명의 상담자들의 동성애혐오반응을 세 가지 차원(인지, 정서적 반응, 행동의도)으로 구분해서 평정하고,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을 통해 동성애혐오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담자의 내재적 종교성향과 권위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고가 더 부정적이었고, 부정적인 정서반응(화, 죄책감) 역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담경력이 많은 상담자일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해 덜 부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고, 부정적인 정서반응 또한 덜할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행동적인 차원의 동성애혐오반응은 상담경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동성애 관련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는 상담자들은 그렇지 않은 상담자들에 비해 동성애지지행동을 더 할 것으로 지각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기관에서 실시한 연수과정에 참여했거나 특정 지역에 소재한 상담실에 근무하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한국의 모든 상담자들에게 일반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동성애혐오반응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동성애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이 상담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상담자의 동성애혐오, 상담경력, 종교성향, 권위주의

[†] 교신저자 : 서영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Tel : 02)450-4189, Email : seox0004@konkuk.ac.kr

동성애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 활동은 우리나라 상담심리학계에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동성애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과정이 대학원 교과과정에 포함된 경우가 드물고, 동성애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 또한 동성애자들의 심리적 적응(백은정, 유영권, 2004),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2002; 김은경, 권정혜, 2004), 대학생들의 동성애혐오(서영석, 이정림, 차주환, 2006) 등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런 현실에서는 상담자가 동성애자들을 상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담자의 이성애 우월주의(heterosexism) 내지는 동성애혐오적인 태도를 탐색하고 수정할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게 된다. 동성애 내담자와 그들이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동성애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편견과 억압, 이로 인한 심리적 역기능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자 자신이 지니고 있을 수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런 훈련과정이 없다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상담자 자신의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상담과정이 방해받고, 결국 효과적인 상담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973년에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동성애를 DSM에서 삭제한 사건은, 성적 경향(sexual orientation)이 정신 병리와 무관하다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새로운 시각을 반영한다. 그 이후 동성애를 병리적인 조건으로 진단·평가하고, 동성애의 원인을 발견하여 동성애를 치료하거나 방지하려는 시도는 이성애 우월주의(heterosexism)

내지는 동성애혐오를 내포하고 동성애를 병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는 시각이 보편화되었다(Morin, 1977). 동성애를 정신질환내지는 성격결함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원인과 치유법을 찾는데 몰두했던 이전 시기와는 달리, 1960년대부터는 성적 경향성 연구가 사회적 결합 모델(social deficiency model; Britton, 1990)을 근간으로 이루어졌다. 이 모델은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성적 경향과 관련된 개인적 특징 때문이 아니라, 상당 부분 주류 사회의 반응에 기인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Fassinger, 1991). 즉, 동성애자들의 심리적 부적응은 대부분 그들의 성적 경향 때문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부정적 반응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Rhoads, 1995).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성적 경향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학대 및 두려움을 경험하고(Evans, 2001; Rankin, 2003), 고립감을 느끼거나 위축, 자기혐오, 분노, 의심 등의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며(김은경, 2001; Garnets, Herek, & Levy, 1992), 심한 경우 자살로까지 이어진다(Schneider, 1989).

한편, Weinberg(1972)는 반(反)동성애 편견, 즉 ‘동성애혐오’(homophobia)를 “폭력과 박탈, 그리고 분리를 야기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비합리적인 비난”으로 정의했는데, 1970년대 초부터 이 개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동성애혐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대중들은 동성애자들을 두려워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assinger, 1991). 즉, 남성이고, 나이가 많으며, 덜 교육을 받고, 독신이면서, 시골에 사는, 그리고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Britton, 1990; Herek, 1994). 또한, 이성애자들은 그들의 성정체성이 동성애자들에 의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더 부정적으로 반응했고(Black & Stevenson, 1984), 이전에 동성애자들과 긍정적인 대인경험을 했을 때 동성애혐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rek, 1988; Herek & Capitanio, 1996).

한편, 1970년대 중반 정신건강 관련 정책들이 변화함에 따라(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73;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75), 정신건강전문가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병리적 모델을 거부하고 긍정적인 입장을 채택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었다(Graham, Rawlings, Halpern & Hermes, 1984). 그 이후로 동성애 및 동성애자들에 대한 정신건강전문가들의 태도는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책적 차원에서의 긍정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에서의 부정적 관점이 서로 충돌하여 내적인 모순상태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Gelso & Fassinger, 1990; Gelso, Fassinger, Gomez & Latts, 1995). 즉, 일반 대중과 비교해볼 때 정신건강전문가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De Crescenzo, 1984), 동성애자들의 생활양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동성애자들에 대해 양가감정과 적개심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성적 경향을 수용하려는 긍정적 태도가 부족하고, 편향된 임상적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드러났다(Betz & Fitzgerald, 1993; Fassinger, 1991; Garnets, et al., 1992). 특히, 동성애자들과 접촉한 경험이 없는 상담수련생들은 높은 수준의 동성애혐오를 보이고, 동성애 기원에 대해 이성애적 편견을 지니고 혼란스러워하며, 심리적 부적응의 원인을 동성애에 두고 동성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McDermott & Stadler,

1988). 심리서비스에 대한 동성애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들 역시, 동성애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Betz & Fitzgerald, 1993). 정신건강전문가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지니고 있거나 이해가 부족할 경우,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동성애적인 성향을 자기정체성의 일부로 통합하는 것을 방해하며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킬 뿐이다(김은경, 권정혜, 2004). 따라서 이 분야의 많은 학자들은 심리학자를 위시한 정신건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성적 경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개선되고 확대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Atkinson & Hackett, 1995; Betz & Fitzgerald, 1993; McHenry & Johnson, 1993). 이들은 심리학 개론에서부터 임상적 진단과 관련된 수업에까지 성적 경향과 관련된 주제들을 소개하고, 상담감독이나 윤리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일 것과, 적절한 훈련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동성애혐오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들이 기존의 심리학 이론이나 연구들을 통합하지 않고 이론적 근거가 미약한 채 진행되었다는 비난이 제기되었다(Britton, 1990). 예를 들어, 많은 선행연구들이 동성애혐오반응의 정서적, 행동적 요소들을 무시한 채 인지적 차원만을 강조한 측정도구들을 사용했다. 따라서 비판적 시각을 지닌 연구자들은, 이런 접근이 태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심리학 문헌들과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서영석 등, 2006; Kite, 1992; Van de Ven, 1994). 즉, 기존의 동성애 관련 연구들이 인간의 태도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런 요소들 간에 불일치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특히, 상담자들의 느낌과 미묘한 행동이 상담

과정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Stein, 1988), 동성애자들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그들의 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서적 반응과 행동적 차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혐오반응의 세 가지 차원, 즉 상담자들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지각하고, 어떤 정서적 반응을 어느 정도로 하며, 어떤 행동적 의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상담심리학계의 동성애 관련 교육과 훈련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외국에서 행해진 선행연구결과들이 우리나라 상담현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이한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현실을 기초로 획득된 외국의 동성애 관련 지식이 한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따라서 동성애 및 동성애자들에 대한 한국 상담자들의 태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현재 상담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상담 전문가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담인력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커밍아웃(coming-out)하는 동성애자들이 늘고 있고 그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별과 편견이 가시화될 가능성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상황에서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정체감 혼미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는 동성애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상담자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고, 그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인들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상담자들의 태도를 세 가지 차원(인지, 정서, 행동)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연구변인을 선정하였는데, 특히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성애자의 태도가 세 가지 심리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Herek(1988)의 주장을 토대로 연구변인들을 선정하였다. 우선, 가치표현(value-expressive) 기능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가 개인의 가치를 대변함으로써 자기의식을 확인하려는 욕구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성역할이나 가족체계 혹은 종교와 같은 이념적 요인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동성애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변인 중 상담자의 가치를 표현한다고 가정되는 권위주의, 내재적 종교성향, 성역할태도, 문화가치 등을 연구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치료개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의 이론적 성향 역시 가치표현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되어 연구변인으로 채택하였다. 경험도식(experiential-schematic) 기능은 동성애자들과의 실제 경험을 통해 발달한 인지적 도식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동성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동성애 知人 변인뿐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상담한 경험, 동성애 관련 수업이나 특강에 참여해 본 경험 등을 연구변인으로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표현(social-expressive)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타인들로부터 수용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대인적 욕구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동성

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회적 표현 기능과 관련 있는 외현적 종교성향과 사회적 바람직성을 연구변인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서영석 등, 2006)에서 특정 종교를 지닌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시사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종교를 연구변인으로 채택하여 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교육수준을 연구변인으로 채택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교육수준에 따라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선행연구(Britton, 1990; Fassinger, 1991; Herek & Glunt, 1993)를 근거로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교육수준을 명목상의 학위로 정의하지 않고, 상담자의 실제적인 교육 및 훈련수준을 나타내는 상담실습경력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자의 종교적 배경과 상담경력에 따라 동성애혐오반응(인지, 정서적 반응, 행동적 의도)에 차이가 있는가?
2. 동성애혐오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상담 실무 경험이 있는 160명의 상담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 중 구체적으로 동성애 행위에 가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설문지 4부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하고 총 148부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 130명(87.8%), 남성 18명(12.2%)으로 대부분이 여성 상담자들이었으며, 연령은 23세부터 59세까지 분포하였다($M = 32.07, SD = 6.68$). 참여자 중 미혼자는 84명(56.8%), 기혼자 57명(38.5%), 이혼 6명(4.1%)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들의 종교는 기독교 68명(45.9%), 가톨릭교 33명(22.3%), 불교 13명(8.8%), 무교 34명(23.0%)으로 나타났다.

상담자들의 최종학력은 석사학위 취득자가 118명(79.7%)으로 가장 많았고, 박사 7명(4.7%), 학사 23명(15.5%)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분야는 상담(심리학)이 105명(70.9%)으로 가장 많았다. 30명(20.3%)의 참여자들이 석사과정 중에 있다고 보고하였고, 박사과정 중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0명(13.5%)이었다. 연구에 참여할 당시 상담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9명(87.2%)이었다. 상담을 하고 있는 기관은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47명(31.7%)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상담센터 46명(31.1%), 개인 상담소 11명(7.4%), 초·중·고등학교 7명(4.7%), 병원 3명(2.0%), 기타 13명(8.8%)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상담경력은 1개월에서 204개월 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37.74개월($SD = 36.23$)로 나타났다. 12가지 대표적인 상담이론을 제시한 후 주된 이론적 접근으로 사용하는 정도를 7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는데, 인간 중심적 접근($M = 5.46, SD = 1.13$), 통합적 접근($M = 4.99, SD = 1.67$), 인지·행동적 접근($M = 4.79, SD = 1.3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성애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우선 동성애知人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8명(12.2%), 동성애 관련 수업을 수강한 사람이 25명(16.9%),

동성애 관련 특강이나 워크샵에 참여한 사람이 27명(18.2%)으로 나타났다. 동성애자와 상담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상담자가 36명(24.3%)으로 나타났는데, 개인상담의 경우 1사례에서 5사례까지 분포하였으며 1사례가 24명(16.2%)으로 가장 많았다. 동성애자와의 상담 회기는 1회기에서 50회기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묻는 설문지와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

- 정서 · 행동 척도,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성역할태도 척도, 종교성향 척도, 권위주의 척도, 자기구성개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설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구통계학적 설문지에는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 연령, 종교, 동성애지인 여부 등을 묻는 개인배경 문항들과 상담 경력, 동성애자 상담 여부, 동성애 관련 수업 및 특강 경험 여부 등을 묻는 상담배경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12개의 주요 상담이론(정신분석, 대상관계, 인지행동, 인간중심 등)을 열거하고, 상담 시 활용하고 있는 정도를 7점 척도(1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7 = 주된 상담이론으로 채택한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 정서적 반응 및 행동 척도

동성애혐오와 관련된 상담자의 인지 · 정서 · 행동적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Jones(2000)가 재구성하여 사용한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 척도’(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s

Homosexual Men and Women)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크게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적 차원을 측정하는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호주 New South Wales 대학 내 National Centre in HIV Social Research로부터 척도를 받은 후 역번역과정(backtranslation)을 거쳤다. 우선 연구자들이 영어로 작성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이것을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이중 언어 사용자(미국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교육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15세 한국인)가 다시 영어로 번역하였다. 원문과 차이가 있는 문구들을 수정하여 최종 검사지를 제작하였다.

수정된 동성애태도 척도(Modified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Scale: MATHS) (Price, 1982). MATHS는 동성애혐오의 인지적 차원을 측정하는 3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9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점=매우 동의한다)로 평정하여, 30점(극단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부터 270점(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태도)까지 점수들이 분포한다. 기존 연구(Jones, 2000; Van de Ven, 1994)에서 Cronbach's alpha는 .94-.96인 것으로 보고되어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성애자들과 이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보다 더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나 MATHS의 준거관련 타당도가 입증되었다(Price, 1982).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 시 MATHS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동성애에 대한 정서적 반응 척도(Affective Reactions to Homosexuality Scale: ARHS)(Van

de Ven, Bornholt, & Bailey, 1997). ARHS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15개의 형용사(예, 당황스러운)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평정하는데, 여성동성애자와 남성동성애자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따로 구분해서 측정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두 개의 동일한 일화(부모 앞에서 커밍아웃하는 자녀)를 읽고, 차례로 “당신이 일화에 나오는 부모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15개 형용사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4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ARHS는 죄책감, 분노, 기쁨이라는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Van de Ven (1994)은 죄책감을 ‘동성애나 동성애자들에 대한 불특정 두려움 혹은 불편감’으로, 분노를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와 그들의 권리에 대한 경멸’로, 기쁨을 ‘동성애나 동성애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각각 정의하였다. ARHS는 기존의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세 가지 요인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rnulf & Innala, 1987; Van de Ven, 1994). 선행 연구에서는 각 하위 요인별 Cronbach's alpha가 죄책감 .90, 분노 .91-.93, 기쁨 .92-.94로 나타났는데(Jones, 2000; Van de Ven, 1994), 본 연구에서는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죄책감 .68, 분노 .82, 기쁨 .75로 나타났으며, 여성 동성애자에 대한 죄책감 .72, 분노 .85, 기쁨 .8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기쁨 하위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였고, 각 척도의 총점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동성애혐오 행동 척도(Homophobic Behavior of Students Scale: HBSS)(Van de Ven et al., 1997). HBSS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의도적 행

동을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1점=절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는데, 10점(극단적으로 부정적)부터 50점(극단적으로 긍정적)까지 점수들이 분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문항(“나는 게이나 레즈비언이 속해있는 점심 바베큐 파티에 참석하지 않겠다”)을 제외한 9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9개 문항 가운데 5개는 동성애자들과의 개인적인 접촉에 관한 문항이며, 나머지 4개는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행동과 관련된 문항이다.

HBSS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MATHS와 높은 상관($r=.78$)을,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는 ARHS의 하위척도들과는 중간정도의 상관(죄책감 .38, 분노 .66, 기쁨 -.56)을 나타내어 공인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1-.86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Jones, 2000; Van de Ven et al., 1997),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동성애자들과의 개인적 접촉 .80, 권익보호행동 .81로 나타났고,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 시 척도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참여자들의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석봉(1989)이 번안한 Marlowe & Crowne(1964)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ocial Desirability Scale: SDS) 33 문항과 정보라(2005)가 Paulhus(1998)의 PDS(Paulhus Deception Scale)와 BIDR-7(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7)에 기초하여 타당화 과정을 거쳐 개발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20개 문항 가운데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 10문항을 합한 43개 문항을 사용

했다. 각 문항은 진위형 척도로 ○, ×로 평정 하며, 분석 시 1, 0으로 코딩하여 높은 점수일 수록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는 .80으로 나타났으며, 분석 시 척도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성역할태도 척도

참여자들의 성역할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성역할태도척도(Gender-Role Attitudes Scale: GRAS)를 사용하였다. GRAS는 정종희(1983)가 Sex-Role Orientation Scale(SRO)과 Sex-Role Ideology Scale(SRI)에서 선별한 문항들을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제작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가 낮은 6문항을 제외한 15문항으로 구성된 김혜원과 김명소(1998)의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GRAS는 여성 및 남성의 가정역할, 여성의 직업역할이라는 2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성역할태도의 전통, 진보 정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점=매우 반대, 5점=매우 찬성)로 평정하며, 점수의 범위는 15-75점이고, 높은 점수일수록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전 연구에서 성역할태도에 대한 Cronbach's alpha는 .82로 나타났고(김혜원, 김명소, 1998),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별 Cronbach's alpha는 여성 및 남성의 가정역할 .75, 여성의 직업역할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 성역할태도 총점을 사용하였다.

종교성향 척도

연구 참여자들의 종교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Allport와 Ross(1967)가 개발한 내재적-외현적 종교성향 척도(Intrinsic Religious and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Sub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내재적 성향 8문항, 외현적 성향 11문항, 집단구분 1문항), 4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내재적 종교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종교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종교 안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를 발견하는 반면, 외현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종교를 외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종교를 통해 소속감, 보호, 사회적 지위, 자기정당화를 얻으려 한다(박재연, 1993; Allport & Ross, 1967).

이 척도를 사용한 국내 연구들(박재연, 1993; 심수명, 1993)은 내재적 집단, 외현적 집단, 친종교적 집단, 비종교적 집단 등 4집단으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정아(1993)의 분류방법을 사용하여, 집단을 나누지 않고 참여자들의 내재적 성향과 외현적 성향 점수를 모두 계산하여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전 연구에서의 내재적 척도에 대한 Cronbach's alpha는 .76-.88인 것으로 보고되었고, 외현적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66-.74인 것으로 나타났다(심수명, 1993; 양정아, 1993; 이해령, 2003).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성향 .89, 외현적 성향 .71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척도

참여자들의 권위주의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민경환(1989)이 개발한 한국판 권위주의척도(Authoritarian Personality Scale)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권위주의척도는 Adorno, Frenkel-Brunswick, Levinson과 Sanford(1950)가 제시한 9개의 권위주의 구성요인, 즉 인습주의,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반내성주의, 미신성과 고

정관념적 사고,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투사성, 성(性)을 기초로 민경환(1989)이 제작한 척도이다. 전체 35개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들은 6점 리커트 척도(1점=절대 그렇지 않다, 6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고, 점수의 범위는 35-210점이다. 높은 점수일수록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전 연구에서 권위주의 전체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는 .86이었고(민경환, 1989),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 시 권위주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자기구성개념 척도

참여자들의 문화가치 충실도를 측정하기 위해 Singelis(1994)가 개발한 자기구성개념척도(Self-construal Scale: SCS)를 사용하였다. 자기구성개념(self-construal)은 타인과 관련해서 생기는 일련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들의 집합체로 이해할 수 있는데, 특히 자신을 타인과 얼마나 큼 분리되어 있는지 혹은 관련되어 있다고 느끼는지를 의미한다. 개인주의적/집단주의적 성향을 양극단의 현상으로 간주해온 이전 척도들에 비해, SCS는 이 두개의 문화적 가치가 한 개인 안에 병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SCS를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두 가지 다른 문화적 성향, 즉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각각 독립적 자기구성개념(independent self-construal)과 상호의존적 자기구성개념(interdependent self-construal)으로 정의하고 그 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CS는 전체 30문항 중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문항("나는 다른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연장자인 경우에도 그 사람의 이름(first name)을 부르는 것이 편하

다")을 제외한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7점 리커트 척도(1점=매우 반대, 7점=매우 찬성)로 평정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독립적 자기구성개념척도에 대한 Cronbach's alpha는 .67에서 .70사이인 것으로 보고되었고, 상호의존적 자기구성개념척도의 Cronbach's alpha는 .71에서 .74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Singelis, 1994; 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 Yamada & Singelis, 1999). SCS는 다인종 간 비교와 집단주의적 의사전달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그 타당도가 입증되었다(Singelis, 1994; Singelis & Brown, 1995). 본 연구에서는 Seo(2002)가 역번역 과정을 통해 번안하고 한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뢰도 검증작업을 거친 한국어판 자기구성개념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독립적 자기구성개념척도 .74, 상호의존적 자기구성개념척도 .77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6년 7월부터 9월까지 세 달간 진행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한국상담심리학회 학계수련회와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상담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수련회와 자격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진행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각 진행자가 행사 중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네 개의 서울 소재 대학상담센터, 한국청소년상담원,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자들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총 220 개의 설문지가 배포되어 160개(72.7%)의 완성

된 설문지가 회수되었는데, 동성애 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4개의 설문지와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8개를 제외한 148개의 설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상담자의 종교에 따른 동성애혐오반응

상담자의 종교에 따라 동성애 혐오반응의 인지적 차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F(3, 144) = 12.62, p < .001, \eta^2 = .21$.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Tukey HSD)을 실시한 결과, 기독교 집단과 나머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다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표 1 참조). 또한, 동성애 혐오반응의 행동적 차원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 $F(3, 144) = 7.43, p < .001, \eta^2 = .13$. 사후검증(Tukey HSD) 결과, 기독교 집단과 나머지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다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드러나

지 않았다. 즉, 기독교를 종교로 둔 상담자들이 다른 상담자들에 비해 동성애자들에 대해 더 부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지지행동을 덜 할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상담자의 종교에 따라 동성애자들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죄책감척도와 분노척도에 대해 각각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자녀가 남자 동성애자와 여자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했을 경우를 모두 평정하였기 때문에, 참여자의 종교를 참여자간 변인으로, 각각의 정서반응 척도를 참여자내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담자가 느끼는 죄책감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F(3, 144) = 9.58, p < .01, \eta^2 = .06$. 상담자들은 자녀가 여자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할 때($M=2.91, SD=.53$)보다는 남자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할 때($M=2.97, SD=.49$)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낄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상담자의 분노반응은 상담자의 종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느 종교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공분산행렬에 대한 Box의 동일성검증 결과 유의하지 않았고($p > .05$), Mauchly의 구형성검증 결과 앱실런(Huynh-Felt)

표 1. 상담자의 종교에 따른 동성애 혐오반응

	기독교 (n=68)		가톨릭 (n=33)		불교 (n=13)		무교 (n=34)		전체 (N=148)		<i>F</i>	사후검증 (Tukey)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인지	4.15	1.25	3.37	1.01	2.61	0.89	3.05	0.87	3.59	1.21	12.62***	기>가*, 기>불*, 기>무*
행동	2.98	0.65	3.45	0.68	3.56	0.72	3.44	0.52	3.24	0.68	7.43***	기<가*, 기<불*, 기<무*

* $p < .05$, ** $p < .001$.

표 2. 상담자의 종교에 따른 죄책감과 분노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

변량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참여자내(남녀자녀 죄책감 : A)	.27	1	.27	9.58**
참여자간(종교:B)	2.10	3	.70	1.45
A*B	.03	3	.01	.35
오차	4.12	144	.03	
참여자내(남녀자녀 분노 : A)	.003	1	.003	.04
참여자간(종교:B)	10.50	3	3.50	3.11*
A*B	.54	3	.18	2.37
오차	10.89	143	.08	

* $p < .05$, ** $p < .01$.

이 1.00인 것으로 드러나, 웹실린이 1에 가까울 경우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Tukey HSD 사후검증(Stevens, 2001)과 보다 엄격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사후검증에서 기독교 집단과 무(無)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고, 그 외 나머지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즉, 기독교를 종교로 둔 상담자들은 종교가 없는 상담자들에 비해 자녀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했을 때 상대적으로 분노를 더 많이 느낄 것으로 인식했다.

상담경력에 따른 동성애혐오반응

참여자의 상담경력에 따라 동성애혐오반응

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Jones, 2000)에서처럼 상담경력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상담경력에 따라 동성애 혐오반응의 인지적 차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F(2, 134) = 5.52$, $p < .01$, $\eta^2 = .08$.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증(Tukey HSD)을 실시한 결과, 상담경력이 1년 미만인 집단과 3년 이상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 참조). 즉, 상담경력이 1년 미만인 상담자들이 3년 이상인 상담자들에 비해

표 3. 상담자의 상담경력에 따른 동성애 혐오반응

	1년 미만 (n=40)	1-3년 (n=48)	3년 이상 (n=49)	전체 (N=137)	F	사후검증 (Tukey)				
	M	SD	M	SD						
인지	4.00	1.34	3.61	1.15	3.16	1.07	3.56	1.22	5.52**	1년 미만>3년이상*
행동	3.17	0.77	3.24	0.65	3.41	0.61	3.28	0.68	1.49	

* $p < .05$, ** $p < .01$.

표 4. 상담자의 상담경력에 따른 죄책감과 분노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

변량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참여자내(남녀자녀 죄책감 : A)	.21	1	.21	7.64**
참여자간(상담경력: B)	7.21	2	3.61	9.25***
A*B	.03	2	.01	.49
오차	3.72	134	.03	
참여자내(남녀자녀 분노 : A)	.04	1	.04	.50
참여자간(상담경력: B)	14.24	2	7.12	7.04**
A*B	.29	2	.15	1.89
오차	10.21	133	.08	

** $p < .01$, *** $p < .001$.

동성애자들에 대해 더 부정적인 사고를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에 대한 행동적 차원은 상담경력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F(2, 134) = 1.49, p = ns$.

상담경력에 따라 동성애자들에 대한 정서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죄책감척도와 분노척도에 대해 각각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우선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담자가 느끼는 죄책감은 자녀의 성별과 상담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가 남자동성애자로 커밍아웃했을 때 상담자들이 더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선행 분석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상담경력에 따른 집단 간 평균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공분산행렬에 대한 Box의 동일성검증 결과 유의하지 않았고($p > .05$), Mauchly의 구형성검증 결과 앱실런의 χ^2 (Huynh-Felt)이 1.00인 것으로 드러나, Tukey HSD와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죄책감과 마찬가지로 상담경력이 3년 이상인 집단과 나머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경력이 3년 이상인 상담자들이 다른 상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노를 덜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리났다. 즉, 상담경력이 3년 이상인 상담자들이 다른 상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책감을 덜 느낄 것으로 지각하였다.

분노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상담경력에 따라 자녀의 커밍아웃에 대해 느끼는 분노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분산행렬에 대한 Box의 동일성검증 결과 유의하지 않았고($p > .05$), Mauchly의 구형성검증 결과 앱실런의 χ^2 (Huynh-Felt)이 1.00인 것으로 드러나, Tukey HSD와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죄책감과 마찬가지로 상담경력이 3년 이상인 집단과 나머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경력이 3년 이상인 상담자들이 다른 상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노를 덜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채택한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6개의 준거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5 참조), 동성애인지와 동성애행동

표 5. 동성애인지, 동성애행동, 정서적 반응 간 상호관련성

변인	1	2	3	4	5	6
1. 동성애인지	-					
2. 동성애행동	-.68**	-				
3. 남죄책감	.51**	-.33**	-			
4. 여죄책감	.51**	-.30**	.89**	-		
5. 남분노	.60**	-.35**	.65**	.63**	-	
6. 여분노	.64**	-.42**	.67**	.63**	.88**	-

** $p < .01$.

간에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r=.68$)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지적 차원을 재는 동성애태도척도의 공인타당도가 적절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동성애인지와 정서 반응 간 상관계수($r=.51$ - $r=.64$), 정서 반응과 행동 간 상관계수($r=-.30$ - $r=-.42$)를 고려해볼 때, 동성애혐오반응의 세 가지 차원, 즉 인지, 정서, 행동적 요소들이 상호 관련성을 지니지만 서로 구별되는 독립적인 차원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6개의 준거변인들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예측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예측변인은 성별, 종교(기독교, 가톨릭, 불교), 동성애지인, 동성애 수업 경험, 동성애 특강경험, 동성애자 상담경험, 상담경력(개월), 사회적 바람직성, 성역할 태도, 종교성향(내재적, 외현적), 권위주의, 자기 구성개념(독립적, 상호의존적), 상담 이론적 성향(정신분석, 대상관계, 개인 심리, 행동주의, 인지행동, 인간중심, 실존주의, 계슈탈트, 현실 치료, 교류분석, 가족, 통합)등이 있다. 상관분석 결과(표 6 참조), 행동주의와 인지행동적 접근($r=.63$), 기독교와 내재적 종교성향($r=.54$),

정신분석과 대상관계($r=.47$), 실존주의와 계슈탈트($r=.47$), 상담경력과 동성애자 상담여부($r=.43$)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대체적으로 예측변인 간 상관계수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고, 행동 및 정서 반응에 미치는 예측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6개의 준거변인들에 대해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같은 방식으로 예측변인들이 투입되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성별, 기독교, 가톨릭, 불교, 동성애지인),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교육 및 훈련 변인(동성애태도, 동성애수업, 동성애자 상담, 상담경력),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심리 사회적 변인(사회적 바람직성, 성역할 태도, 권위주의, 종교성향, 자기구성개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론적 성향 변인을 각각 투입하였다. 이 때, 두 번째 단계에 투입 한 상담경력(개월)과,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에 투입된 예측변인들, 그리고 6개의 준거변

표 6. 예측변인 간 상관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	-																												
2	-.07	-																											
3	.10	-.49*	-																										
4	-.10	-.29*	*	-.17*	-																								
5	.01	.07	-.00	-.04	-																								
6	-.05	.02	.19*	-.08	.11	-																							
7	-.04	-.01	-.00	.04	-.02	.35**	-																						
8	-.17*	-.08	-.04	.10	-.02	.08	.26**	-																					
9	-.20*	-.18*	.07	.11	-.13	.12	.33**	.43**	-																				
10	.00	-.05	.10	.01	-.02	.06	.17*	.03	.16	-																			
11	-.21*	.08	.01	-.06	-.07	.07	-.00	-.00	-.13	-.08	-																		
12	.11	.54**	-.05	-.07	-.03	.10	-.00	-.04	-.04	.09	-.02	-																	
13	.01	-.33*	*	.22**	.02	-.03	.18*	-.07	-.09	.09	-.02	.11	*	-.26*	-														
14	.12	.13	.08	-.10	.03	-.01	-.06	-.21*	-.18*	.07	.37**	.03	.13	-															
15	.02	-.12	-.06	.14	.03	-.02	-.06	-.02	.06	.03	-.15	.10	-.03	-.04	-														
16	.15	.09	-.03	.03	.05	-.04	-.16	-.19*	-.17*	.08	.10	.17*	-.04	.32**	.24**	-													
17	-.08	-.01	.05	-.01	-.09	-.06	.06	.09	.09	-.04	.08	.12	.09	.02	-.03	-.10	-												
18	.12	.01	.05	-.00	.05	.12	.03	.04	-.03	.02	-.02	.08	.14	.07	.02	-.05	.47**	-											
19	.04	.13	-.07	-.03	-.00	.23**	.13	.14	-.14	.11	.10	.08	.01	.21*	-.02	.02	.11	.36**	-										
20	.10	.05	-.05	-.04	.03	-.01	.09	-.08	-.16	.18*	.10	.12	.07	.31**	.00	.24**	.06	.19*	.43**	-									
21	-.02	-.08	-.03	-.12	.05	.03	-.02	-.15	-.14	.14	.10	-.18*	.08	.18*	.06	.14	-.02	.03	.22*	.63**	-								
22	.07	-.09	.03	-.13	-.02	.12	.02	.04	-.03	-.01	.13	-.04	.12	.06	-.01	.14	.19*	.27**	.22*	.14	.32**	-							
23	.07	.08	-.02	.01	-.10	.06	-.05	.11	.02	-.06	.09	.15	.12	.11	.24**	.03	.17*	.17*	.33**	.08	.02	.26**	-						
24	.01	.11	.02	-.12	.13	.16	-.02	.03	-.09	.06	.05	.05	.09	.04	.05	.08	.05	.25**	.31**	.02	.01	.23**	.47**	-					
25	-.09	.08	-.12	-.10	.02	.04	.01	.05	-.04	.04	.07	-.01	.12	.13	.23*	.12	-.08	.04	.36**	.30**	.29**	.25**	.38**	.29**	-				
26	-.01	.15	-.04	-.13	.00	.18*	.02	-.10	-.22*	.12	.19*	.14	.01	.13	.15	.01	.03	.18*	.41**	.35**	.16	.09	.24**	.26**	.38**	-			
27	-.02	.13	.06	-.07	-.03	.11	-.07	-.19*	-.13	.16	.00	.20*	-.03	.10	.18*	.14	-.05	.09	.30**	.28**	.23**	-.02	.30**	.17*	.25**	.38**	-		
28	.12	-.04	.06	-.16	.12	.13	.13	.09	.08	.04	-.12	.04	-.10	.01	.06	.07	-.01	.20*	.22**	.03	.10	.19*	.09	.17*	.15	.07	.19*	-	

참조. 1=성별; 2=기독교; 3=가톨릭; 4=불교; 5=동성애자인; 6=동성애수업; 7=동성애특강; 8=동성애자상담; 9=상담경력; 10=사회적 지향성; 11=성역할태도; 12=내재적 종교; 13=외현적 종교; 14=권위주의; 15=독립적 구성개념; 16=상호의존적 구성개념; 17=정신분석; 18=대상관계; 19=개인심리; 20=행동주의; 21=인지행동; 22=인간중심; 23=실존주의; 24=계슈탈트; 25=현실치료; 26=교류분석; 27=가족시스템; 28=통합적

* $p < .05$, ** $p < .01$.

인들을 모두 표준점수화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은데,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의 표준화된 베타값과 단계별 설명량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회귀분석 시 Dubin-Watson 지수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Dubin-Watson 지수는 1.79(여죄책감)에서 2.06(동성애 인지) 사이의 값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0과 4 등 극단적인 점수를 보이지 않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예측변인들의 VIF는 각각 1.19~3.93(동성애 인지), 1.30~3.93(동성애 행동), 1.26~3.93(남죄책감), 1.19~3.93(여죄책감), 1.20~3.91(남분노), 1.20~3.91(여분노)인 것으로 드러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적은 것으로 재차 확인되었다.

6개의 준거변인들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든 회귀모델이 4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동성애인지, $F(28, 93) = 4.74, p < .001$; 동성애행동, $F(28, 93) = 2.23, p < .01$; 남자동성애자 죄책감, $F(28, 93) = 1.59, p < .01$; 여자동성애자 죄책감, $F(28, 93) = 1.56, p < .01$; 남자동성애자 분노, $F(28, 92) = 1.37, p < .05$, 여자동성애자 분노, $F(28, 92) = 1.69, p < .01$.

동성애 인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네 번째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모델의 설명량이 이전 단계보다 유의하게 증가했다. 즉, ‘교육 및 훈련’ 변인들이 투입된 2단계 회귀모델은 이전 모델보다 동성애 태도의 변량을 8%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였고, 심리사회적 변인들이 투입된 3단계 모델에서는 2단계 회귀모델과 비교해 동성애 태도의 변량을 25% 더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마

지막으로, 이론적 성향 변인들이 투입된 4단계 모델은 이전 모델에 비해 6%의 변량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든 예측변인들이 투입된 4단계 회귀모델에서의 표준화된 베타값을 살펴보면, 권위주의, 내재적 종교성향, 실존주의적 경향, 불교, 상담경력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권위주의와 내재적 종교성향이 강한 상담자일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지닌 반면, 실존주의를 주요 상담이론으로 채택하고, 불교인이면서, 상담경력이 많을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해 덜 부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

동성애 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단계 모델의 설명량(15%)이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3단계 모델의 설명량이 이전 모델의 그 것과 비교해서 유의하게 증가(1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 회귀모델에서는 권위주의, 사회적 바람직성, 동성애수업 변인 순으로 동성애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권위주의성향과 사회적 바람직성이 강한 상담자일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한 지지행동을 적게 할 것으로 지각한 반면, 동성애 관련 수업을 들은 상담자일수록 지지행동을 더 할 것으로 지각하였다.

정서 반응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자녀의 성별과 정서 반응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즉, 인구통계학적 변인들만 투입된 1단계 회귀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마지막 4단계 회귀모델의 설명량은 이전 모델의 그것과 비교해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상담의 이론적 성향변인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정서 반응을 의미있고 독특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2단계와 3

표 7. 동성애 인지, 행동, 정서 반응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투입단계	변인	동성애 인지	동성애 행동	남죄책감	여죄책감	남분노	여분노
1단계	성별	.06	-.13	-.02	.01	-.03	-.08
	기독교	-.03	-.13	-.29	-.26	-.19	-.26
	가톨릭	-.15	.09	-.08	-.10	-.02	-.08
	불교	-.21*	.07	-.03	-.02	-.10	-.03
2단계	동성애지인	-.08	.05	.02	.00	.00	-.01
	동성애수업	-.08	.22*	-.08	-.11	-.16	-.18
	동성애틱강	.07	-.10	.03	.03	.05	.05
	동성애자상담	-.06	.16	-.01	-.02	-.21*	-.11
3단계	상담경력	-.19*	.00	-.32**	-.29**	-.20	-.25*
	사회적정향성	.12	-.22*	-.09	-.07	-.05	-.11
	성역할태도	.06	-.14	.04	.14	-.07	-.00
	내재적종교	.38***	-.15	.41**	.46***	.30*	.43**
4단계	외현적종교	-.11	.16	-.09	-.07	-.13	-.15
	권위주의	.42***	-.23*	.16	.04	.27*	.31**
	독립적	.03	-.04	-.09	-.16	-.10	-.09
	상호의존적	-.13	.11	.16	.11	-.14	-.15
4단계	정신분석	-.01	.11	.05	.03	.07	-.00
	대상관계	.02	-.04	.16	.16	.07	.08
	개인심리	.05	-.04	-.04	-.00	.09	.10
	행동주의	-.12	.10	-.11	-.09	-.08	-.06
	인지행동	.11	-.02	.07	-.09	.06	.10
	인간중심	-.03	.11	.09	.13	.03	.09
	실존주의	-.23*	.11	-.06	-.14	-.06	-.07
	케슈탈트	.03	-.08	.03	-.01	.01	.09
	현실치료	-.10	.08	-.02	.00	-.00	-.04
	교류분석	.11	-.01	-.15	-.10	.00	-.03
	가족	-.02	-.02	.06	.12	.03	.09
	통합	-.05	.00	-.19*	-.12	-.18	-.22*
단계 1 ΔR^2		.21***	.15**	.04	.05	.05	.04
단계 2 ΔR^2		.08*	.06	.14**	.11**	.15**	.15**
단계 3 ΔR^2		.25***	.15**	.12*	.16**	.11**	.17**
단계 4 ΔR^2		.06	.04	.09	.07	.04	.07
전체모델 R^2		.59***	.40**	.39**	.40**	.34*	.42**

참조. 성별, 기독교, 가톨릭, 불교, 동성애지인, 동성애수업, 동성애틱강, 동성애자 상담 등 가변수는 0과 1로 코딩하였다(예, 1 = 여자, 기독교인).

* $p < .05$, ** $p < .01$, *** $p < .001$.

단계 회귀모델은 각각 그 이전 단계 회귀모델과 비교해볼 때 추가 설명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4단계 회귀모델에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우선 상담자의 내재적 종교성향과 상담경력이 죄책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내재적 종교성향이 강한 상담자일수록 자녀의 커밍아웃에 대해 더 많은 죄책감을 느낄 것으로 보고한 반면, 상담경력이 많은 상담자일수록 죄책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자녀가 남자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할 경우에는 내재적 종교성향과 권위주의성향이 강할수록 더 강한 분노를 느낄 것으로 보고한 반면, 동성애자와 상담한 경험이 있는 상담자들은 느끼는 분노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자녀가 여자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할 경우에는 내재적 종교성향과 권위주의가 강할수록 분노를 더 느낄 것으로 보고하였고, 상담경력이 많고 통합적 접근을 하는 상담자일수록 느끼는 분노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동성애혐오반응을 세 가지 차원(인지, 행동, 정서)으로 구분해서 평정하고,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을 통해 동성애 혐오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동성애혐오반응의 세 가지 차원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지, 정서, 행동적 차원들이 비교적 서로 구별되는 독립적인 요소임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이 척도를 개발하고 사용한 선행연구들(Jones, 2000; Van de

Ven, 1994)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동성애혐오반응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핀 본 연구의 가정과 틀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1에 대한 검증 결과, 상담자의 배경변인, 즉 종교와 상담경력에 따라 동성애혐오반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기독교를 종교로 둔 상담자들이 다른 상담자들에 비해 동성애자들에 대해 더 부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지지행동을 덜 할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자녀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했을 경우 더 많은 분노를 느낄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선행연구(서영석 등, 2006)에서 시사된 종교에 따른 동성애혐오반응의 차이가 본 연구에서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종교의 종류와 내재적 종교성향 간 상관이 기독교인들에게서만 유의한 것과($r = .54, p < .01$), 회귀분석에서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고와 정서반응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함께 고려해 해석할 수 있다. 즉, 내재적 종교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종교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종교 안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를 발견하고 종교적 교리에 입각해 도덕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Allport & Ross, 1967), 본 연구에서 기독교를 종교로 둔 상담자들이 기독교 교리에 배치되는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담자의 교육수준, 즉 상담경력 역시 동성애혐오반응에 차이를 야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경력을 범주변인으로 채택하여 그 차이를 검증했을 때, 상담경력 3년 이상의 상담

자들이 다른 상담자들에 비해 동성애자들에 대해 덜 부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고, 자신의 자녀가 커밍아웃했을 경우 죄책감과 분노를 덜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변인들이 포함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도 상담경력이 증가할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반응이 대체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상담경력이 많은 상담자일수록 동성애자들과 상담한 경험이 많고($r=.43$), 따라서 동성애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그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생활양식을 파악해감에 따라 기존의 편견과 선입견이 적어져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에 따라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선행연구결과(Britton, 1990; Fassinger, 1991; Herek & Glunt, 1993)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며, 특히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집단인 상담자들에게서도 이러한 경향이 재확인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2에 대한 검증을 위해 동성애혐오반응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일관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예측변인들이 모두 투입된 마지막 회귀모델은 6개의 준거변인 모두에 대해 의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 및 훈련’ 변인들과 심리사회적 변인들이 투입된 2단계와 3단계 회귀모델이 각각 그 이전 모델과 비교해 설명량이 의미 있게 증가했다. 그러나 상담자의 이론적 성향이 투입된 마지막 회귀모델은 설명량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과 관련해서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 즉, 상담자의 동성애혐오반응은 상담자의 개인적 배경과 이론적 성향보다는 주로 교육 및 훈련 변인(상담경력,

동성애자 상담)이나 심리사회적 특징(내재적 종교성향, 권위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동성애혐오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개별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교육 및 훈련 변인보다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동성애 또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한국 상담자들의 태도가 경험도식(experiential-schematic)기능보다는 가치표현(value-expressive)기능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서영석 등, 2006)와 비슷한 결과인데, 동성애자들에 대한 한국 상담자들의 태도는 그들이 받은 상담교육 및 훈련, 그리고 실제적인 상담실습을 통해 얻어진 전문가로서의 정체성보다는, 한 자연인으로서 지니는 심리적인 특징들에 의해 더 좌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상담자일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와 정서반응(분노)을 보이며 동성애 관련 지지활동을 덜 할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 및 주장(서영석 등, 2006; Haddock & Zanna, 1998; Herek, 1988; Whitley, 1999)과 일치한다. 권위주의 성격이론에 따르면,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인간을 고유한 개인이나 보편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 통념적 집단구분에 따라 집단구성원들을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민경환, 1989). 특히, 이들은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을 따르고, 기득권에 복종하려 하며, 사회적 권위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과 같이 전통적인 가치를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 위협감을 느끼기

마련이다(Altemeyer, 1996; Haddock & Zanna, 1998). 이러한 권위주의적 특징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상담경력이 아니라 동성애 관련 수업을 들은 경험이 동성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상담경력이 증가할수록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의 동성애혐오반응은 감소하지만 행동적인 차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표준화된 베타값=.00)은, 동성애혐오반응의 세 가지 차원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더욱이, 상담경력이 증가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들과 관련된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서양에서는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소수자들을 옹호하고 보호할 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인으로서 상담자의 역할(change agent)을 강조하는데(Fassinger, 2000; Phillips, Ingram, & Mindes, 2003), 한국에서는 동성애와 관련된 상담자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낼 만큼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뚜렷한 지향점이 아직 자리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록 동성애관련 수업 경험이 인지적, 정서적 반응 변인들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부적인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간의 성과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한 후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Patton & Morrison, 1993, 1994), 수업장면에서 동성애자들과 직접 교류함으로써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과 불안이 감소되었다는 연구결과(Green, Dixon, & Gold-Neil, 1993; Herek, 1994; Lance, 1987)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동성애 내담자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이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상담자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성애자들의 생활양식과 사고 및 정체성 발달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상담자가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이성애 우월주의(heterosexism)내지는 동성애혐오(homophobia)를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과 관련된 교과목 개설, 수업장면에서 동성애자들과의 상호교류, 동성애와 관련된 시청각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 등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문제 검증을 위한 통계분석결과와는 별도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비록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선행연구(서영석 등, 2006)에서 나타난 대학생들의 동성애혐오반응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의 동성애혐오반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인지적 차원만을 고려한 선행연구에서 대학생들은 9점 척도 상에서 평균 5.46 점 정도의 부정적인 사고를 드러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차원의 동성애혐오반응이 9점 중 평균 3.5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론, 대학생들에 비해 상담자들이 상대적으로 동질적이고 교육수준이 높다는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환경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동성애혐오반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반동성애문화가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이 유무형의 차별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한국 상담자들에게 있을 수 있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상담자들의 공감과 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동성애혐오반응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동성애혐오반응의 세 가지 차원을 서

로 비교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 할 수 있다. 척도의 하위요소별 평균치를 비교해보면(표 1 참조),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반면, 죄책감은 상대적으로 높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지지행동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한국 상담자들의 태도가 다소 유동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즉, 인지적으로는 동성애자들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으며, 동성애자들을 응호하고 지지하는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담자들의 이런 태도는 동성애자들과 상담을 할 때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상담자가 동성애 내담자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것은 분명 상담관계형성뿐만 아니라 문제해결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본 연구는 특정 상담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여했거나, 특정 지역에 소재한 상담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따라서 표집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결과를 전국의 상담자들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이 대부분 여성인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성별에 따라 동성애혐오반응이 달라지고, 영향을 미치는 변인 또한 달라진다는 선행연구(서영석 등, 2006; Herek, 1988)를 고려한다면, 추후 연구에서는 남녀의 비율을 고려한 의도적 표집을 통해 성별에 따라 동성애혐오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성애 관련 척도들의 문화·사회적 적절성과 관련이 있다. 비록 연구자들이 역번역과정을 통해 해석상의 오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개발된 문항들의 문화적 이질성을 얼마나 극복하고 우리 문화의 특수한 현실이나 경험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동성애태도의 하위척도들이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고, 인지, 정서, 행동적 차원이 비교적 서로 구별되는 독립적인 요소임이 밝혀져 구성개념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연구 개시 전에 엄격한 타당화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척도들을 사용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성애혐오반응의 각 문항에 반응하는 연구상황을 고려할 때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자녀가 커밍아웃할 경우를 가정하고 정서적 반응을 평정하도록 요구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평정방식이 그들의 실제적인 정서반응과 동일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즉, 실제로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할 때의 정서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성애혐오 행동척도 역시, 동성애지지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그 의도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활동에 실제 참여하는 정도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성애혐오반응척도가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세 가지 차원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서양에서는 동성애와 관련된 이론적 접근과

경험적 연구들이 1970년대 이후 상담심리학계 내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와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상담심리학계는 동성애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한국의 상담자들은 상담을 포함한 동성애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많지 않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유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담자들이 자신의 동성애혐오적인 태도를 탐색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담 관련 교육과 훈련과정 중에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동성애와 관련된 다양하고 객관적인 연구, 특히 동성애자들의 심리적 적응, 정체성발달, 상담에 대한 요구도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동성애 내담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내용지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2002).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 비교. *신경정신의학*, 41(5), 930-941.
- 김은경 (2001).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남성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권정혜 (2004).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남성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969-981.
- 김혜원, 김명소 (1998). 취업이 기혼여성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1), 35-50.
-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146-168.
- 박재연 (1993). 종교성향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은정, 유영권 (2004). 기독 남성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과정: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825-842.
- 서영석, 이정립, 차주환(2006).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혐오에 미치는 영향.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77-199.
- 심수명 (1993).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에 따른 자아분화와 죄책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정아 (1993). 종교성향 및 태도와 도덕적 판단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령 (2003). 종교성향과 강박적 성격특성이 사고-행동 융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보라 (2005). 사회적 바람직성의 구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종희 (1983).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Bowen의 가족체제 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dorno, T. W., Frenkel-Brunswic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Allport, G. W., & Ross, J. M. (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32-443.
- Altemeyer, B. (1996). *The authoritarian spect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7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75). Minutes of the council of representatives. *American Psychologist*, 30, 633.
- Atkonson, D. R., & Hackett, G. (Eds.) (1995). *Counseling diverse populations*. Madison, WI: WCB Brown and Benchmark.
- Betz, E., & Fitzgerald, L. (1993). Individuality and diversity: Theory and research in counseling psycholog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343-381.
- Black, K. N., & Stevenson, M. R. (1984). The relationship of self-reported sex-role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Journal of Homosexuality*, 10(1/2), 83-93.
- Britton, D. M. (1990). Homophobia and homosociality: An analysis of boundary maintenance. *Sociological Quarterly*, 31, 423-439.
- De Crescenzo, T. A. (1984). Homophobia: A study of the attitudes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toward homosexuality. *Journal of Social Work and Human Sexuality*, 2, 115-136.
- Ernulf, K. E., & Innala, S. M. (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and affective components of homophobic reactio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6(6), 501-509.
- Evans, N. J. (2001). The experiences of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s in university communities. In A. R. D'Augelli & C. Patterson (Eds.), *Lesbian, gay and bisexual identities and youth: Psychological perspectives* (pp. 181-19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assinger, R. E. (1991). The hidden minority: Issues and challenges in working with lesbian women and gay me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9(2), 157-176.
- Fassinger, R. E. (2000). Applying counseling theories to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Pitfalls and possibilities. In R. M. Perez, K. A., DeBord, & K. J. Bieschke (Eds.), *Handbook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pp. 107-13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arnets, L., Herek, G. M., & Levy, B. (1992). Violence and victimization of lesbians and gay men: Mental health consequences. In Herek, G. M., & Kevin, T. Berrill (Eds.), *Hate crimes: Confronting violence against lesbians and gay men* (pp. 207-223). Newbury Park, CA: Sage.
- Gelso, C. J., & Fassinger, R. E. (1990). Counseling Psychology: Theory and research on interven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 355-386.
- Gelso, C. J., Fassinger, R. E., Gomez, M. J., & Latts, M. G. (1995). Countertransference reactions to lesbian clients: The role of homophobia, counselor gender, and countereffectiveness manage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3), 356-364.
- Graham, D. L. R., Rawlings, E. I., Halpern, H. S., & Hermes, J. (1984). Therapists' needs for training in counseling lesbians and gay

- me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5(4), 482-496.
- Green, S., Dixon, P., & Gold-Neil, D. (1993). The effects of a gay/lesbian panel discussion on college student attitudes toward gay men, lesbians, and persons with AIDS (PWAs). *Journal of Sex Education and Therapy*, 19(1), 47-63.
- Haddock, G., & Zanna, M. P. (1998). Authoritarianism, values, and the favorability and structure of antigay attitudes. In G. M. Herek (Ed.), *Stigma and sexual orientation: Understanding prejudice against lesbians, gay men, and bisexuals* (pp. 82-107). Thousand Oaks, CA: Sage.
- Herek, G. M. (1988).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Correlates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Sex Research*, 25, 451-477.
- Herek, G. M. (1994). Assessing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A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with the ATLG scale. In B. Greene & G. M. Herek (Eds.), *Lesbian and gay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206-228). Thousand Oaks, CA: Sage.
- Herek, G. M., & Capitanio, J. P. (1996). "Some of my best friends..." Intergroup contact, concealable stigma, and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412-424.
- Herek, G. M., & Glunt, E. K. (1991). AIDS-related attitudes in the United States: A preliminary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Sex Research*, 28, 99-123.
- Herek, G. M., & Glunt, E. K. (1993). Interpersonal contact and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gay men: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Sex Research*, 30, 239-244.
- Jones, L. S. (2000). Attitudes of psychologists and psychologists-in-training to homosexuality women and men: An Australian study. *Journal of Homosexuality*, 39(2), 113-132.
- Kite, M. E. (1992). Individual differences in male's reactions to gay males and lesbia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2, 1222-1239.
- Lance, L. M. (1987). The effects of interaction with gay persons on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Human Relations*, 40, 329-335.
- Marlowe, D. & Crowne, D. P. (1964). *The approval motive: Studies in evaluative dependence*. New York: Wiley.
- McDermott, D., & Stadler, H. A. (1988). Attitudes of counseling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toward minority client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11, 61-69.
- McHenry, S. S., & Johnson, J. W. (1993). Homophobia in the therapist and gay and lesbian client: Conscious and unconscious collusion in self-hate. *Psychotherapy*, 30(1), 141-151.
- Morin, S. F. (1977). Heterosexual bias in psychological research on lesbianism and male homosexuality. *American Psychologist*, 32, 629-637.
- Patton, W., & Morrison, M. (1994). Investigating attitudes towards sexuality: Two methodologies. *Journal of Sex Education and Therapy*, 20(3), 185-197.

- Paulhus, D. L. (1998). *Manual for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BIDR-7)*. Toronto/Buffalo: Multi-Health systems.
- Phillips, J. C., Ingram, K. M., Smith, N. G., & Mindes, E. J. (2003). Methodological and content review of lesbian-, gay-, and bisexual-related articles in counseling journals: 1990-1999.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1(1), 25-62.
- Price, J. H. (1982). High school student's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52, 469-474.
- Rankin, S. (2003). *Campus climate for gay, lesbian,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A national perspective*. National Gay and Lesbian Task Force. Washington, DC.
- Rhoads, R. A. (1995). Learning from the coming-out experiences of college mal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6, 67-74.
- Schneider, M. (1989). Parental acceptance, comfortableness with sexual orientation, and self-esteem among gay and lesbian youths: A reflected appraisals model. *Journal of Homosexuality*, 17, 111-130.
- Seo, Y. S.(2002). *Culture, personality, and emotional expression in counsel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Singelis, T. M.(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 Singelis, T. M., & Brown, W. J.(1995). Culture, self, and collectivist communication: Linking culture to individual behavior.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1, 354-389.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S., & Gelfand, M.(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 Cultural Research: The Journal of Comparative Social Science*, 29, 240-275.
- Stein, T. S. (1988).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psychotherapy with gay men and lesbians. *Journal of Homosexuality*, 15, 75-95.
- Stevens, J. P. (2001).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4th ed.)*.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 Inc.
- Van de Ven, P. (1994). Comparisons among homophobic reactions of undergraduates, high school students, and young offenders. *Journal of Sex Research*, 31(2), 117-124.
- Van de Ven, P., Bornholt, L., & Bailey, M. (1997). Homophobic behavior of students scale. In C. M. Davis, W. H. Yarber, R. Bauserman, G. Scheer, & S. L. Davis(Eds.), *Handbook of sexuality-related measures*. Beverly Hills, CA: Sage.
- Weinberg, G. (1972). *Society and the healthy homosexual*. New York: St. Martin's Press.
- Whitley, B. E., Jr. (1999). Right-wing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126-134.
- Yamada, A. M., & Singelis, T. M.(1999). Biculturalism and self-construal.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 697-709.

원고 접수일 : 2007. 3. 27

수정원고접수일 : 2007. 5. 1

게재 결정일 : 2007. 5. 14

A Study of the Homophobic Reactions of Counselors

Young Seok Seo Junglim Lee Jaehee Kang Juhwan Cha
Konkuk University

Homophobic reactions of Korean counselors ($N=148$) were examined using Jones'(2000) measures of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dimensions of homophobia. Results indicated that counselors were more homophobic when they held high levels of implicit religiosity and authoritarianism. It was also found that the more counseling experience they had, the less they were homophobic in their thinking and feelings of anger and guilt, but not in their intentional behavior. Those who took classes on homosexuality were less homophobic in their intentional behavior than those who did not. The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assessing homophobic response multidimensionally. Implications for the training of counselors are discussed.

Key words : homophobia in counselors, counseling experience, religiosity, authoritarianism